

연구비 수혜실적, 이공계열 '압도적' 교내연구비 예체능계열 평균 1,500만 원 줄어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8,700만 원)가 단과대학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2013년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를 계열별로 따져봤을 때 이공계열(1억 7,903만 원)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5,724만 원), 인문사회 계열(2,413만 원)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상위 5개 단과대학은 이과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등락 추이에 따라 순서만 일부 바뀔 뿐이다.

이는 계열특성에 따른 '교외연구비' 격차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풀이된다. 예를 들어 호텔관광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가 2,971만 원으로 인문사회계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뒀지만, 이공계열의 평균의 1/5에도 못 미쳤다. 계열 특성에 따른 격차가 현격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반대로 '교외 연구비'가 부진한 대학도 상당수였다.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에서 외국어대학(612만 원)과 문과대학(823만 원)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연구비 수혜실적에 그쳤다. 예체능계열에서도 체육대학(8,769만 원)이 비교적 높은 실적을 거뒀지만, 아래에 무용학부(285만 원), 미술대학(104만 원) 등은 연구비 수혜실적이 평균보다 턱 없이 부족했다.

한편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의 경우 이과대학, 국제대학, 경영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간호과학대학의 5개 단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모두 하락했다. 이는 우리학교 교내연구비 전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11년 371건의 연구에 247억 원을 지원하던 교내연구비는 2012년

(2012-2013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2012	2013	등락폭
간호과학대학	255만 원	289만 원	▲34만 원
경영대학	1,831만 원	0원	▼1,831만 원
공과대학	2,888만 원	2,409만 원	▼479만 원
국제대학	551만 원	1,750만 원	▲1,199만 원
문화대학	1,298만 원	696만 원	▼602만 원
미술대학	1,720만 원	111만 원	▼1,609만 원
생명과학대학	1,180만 원	0원	▼1,180만 원
생활과학대학	942만 원	182만 원	▼760만 원
약학대학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예술·디자인대학	1,070만 원	274만 원	▼796만 원
외국어대학	697만 원	294만 원	▼403만 원
음악대학	1,506만 원	589만 원	▼917만 원
응용과학대학	1,602만 원	1,358만 원	▼244만 원
이과대학	1,448만 원	3,198만 원	▲1,750만 원
전자정보대학	2,387만 원	1,252만 원	▼1,135만 원
정경대학	1,383만 원	2,553만 원	▲1,170만 원
체육대학	1,814만 원	342만 원	▼1,472만 원
한의과학대학	362만 원	133만 원	▼229만 원
호텔관광대학	1,453만 원	508만 원	▼945만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70만 원	187만 원	▲117만 원
무용학부	1,802만 원	1,286만 원	▼516만 원

(2012-2013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2012	2013	등락폭
간호과학대학	2,360만 원	2,512만 원	▲152만 원
경영대학	2,732만 원	937만 원	▼1,795만 원
공과대학	13,861만 원	19,107만 원	▲5,246만 원
국제대학	122만 원	619만 원	▲497만 원
문화대학	1,855만 원	822만 원	▼1,033만 원
미술대학	400만 원	104만 원	▼296만 원
생명과학대학	8,560만 원	15,441만 원	▲6,881만 원
생활과학대학	14,058만 원	15,981만 원	▲1,923만 원
약학대학	4,548만 원	5,970만 원	▲1,422만 원
예술·디자인대학	6,764만 원	1,484만 원	▼5,280만 원
외국어대학	1,435만 원	611만 원	▼824만 원
음악대학	0원	0원	0원
응용과학대학	8,132만 원	9,415만 원	▲1,283만 원
이과대학	17,484만 원	14,375만 원	▼3,109만 원
전자정보대학	15,258만 원	16,304만 원	▲1,046만 원
정경대학	2,538만 원	2,869만 원	▲331만 원
체육대학	6,495만 원	8,769만 원	▲2,274만 원
한의과학대학	3,403만 원	4,832만 원	▲1,429만 원
호텔관광대학	2,137만 원	2,971만 원	▲834만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1,504만 원	1,675만 원	▲171만 원
무용학부	0원	285만 원	▲285만 원

"현재 융합교육 다전공과 다르지 않다"

융합교육 대토론회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공 하나만으로 남은 인생을 끌어가 긴 힘들다." 융합교육지원센터 허균영 센터장은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방향을 '실질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라고 꼽았다. 학제간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다른 전공의 벽은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융합교육지원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6일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에서 '융합교육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 센터장을 비롯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이준복 센터장, 이선아(한국어학)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과 6명의 학생패널, 1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학생패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학교의 융합교육 실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무용과 한의학 융합트랙에 참여한 홍우인(무용학 2013) 양은 "한의학적 지식을 무용에 접목해 '혈자리'를 자극하는 수업을 들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분들께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교과 융합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형원(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2012) 양 역시 "싱가폴국립대에서 진행하는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 전공의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 전공 책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고, 단과대학별 '융합교육현황'에 대한 학생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비교과 대표로 나온 최 양은 "비교과 측면에서 봤을 때 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한다"고 말한 반면, 이예진(언론정보학과 2013) 양은 "언론정보학과의 경우 4가지 트랙이 있지만 융합교육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의가 거듭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다수의 패널이 융합교육이 다전공과 다르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최역인(생체의공학 2010) 교수는 "융합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깊이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전공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은 수치를 보여 1등급을 받았다.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 :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책무성의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

비 부담률 등이다. 이를 항목을 해당 대학의 등급 파악이 가능하도록 5등급으로 나누어 ★로 표시됐다. 상위 10%(★ 5개 : 1등급), 상위 10%~30%(★ 4개 : 2등급), 상위 30%~70%(★ 3개 : 3등급), 상위 70%~90%(★ 2개 : 4등급), 하위 10%(★ 1개 : 5등급) 등으로 구분됐다.

다양한 논의가 오고간 가운데, 융합교육지원센터는 토론회 녹화 분을 분석해 향후 정책결정시 참고할 보고서로 만들 계획이다.

경희대와 삼성노블카운티가 함께하는 작은 나눔 2014 가을 음악회

2014. 11. 13 (목) 19:00
삼성노블카운티 3층 국제회의실

주최 경희대 생활관, 삼성노블카운티

후원 삼성노블카운티 보은회, GS건설, 경희대 학생기숙사(유), 생활관 자치회

음악회 모금액은 지역사회 결손가정 및 불우청소년돕기에 사용됩니다.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回事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평점은 활용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10. 6(월) 10:00 ~ 11.28(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장→강의평가→수강평점확인

3. 입력회원 설명
가. '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합니다. 평가 회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평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정답'기를 클릭하여 이전회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기는 1평화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기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사지원과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4~2007학년 재학생(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2014-2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3. 면제기준 및 자격

(※ 기타 면제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 참조)

가. 대학영어 1~수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지로 개별별 TOEFL, TOEIC, TEPS, G-TELP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일자자

3) 영어권 국가인 특례인원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센터주관 영어권 학교교류학생 및 어학연수생

나. 사고와 표현 영어 1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단계: 득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80점 이상

4. 신청기간 : 2014. 11. 10(월) ~ 12. 12(금)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